

남북화해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임 순 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7월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되었던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 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봉행사가 그러했듯이 이번 행사도 남북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들의 슬픈 사연과 기쁜 소식들이 함께 하여 울음과 웃음이 범벅이 된 채 진행되었으며 특히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의 아는 듯 모르는 듯한 '애매한 표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리게 하였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부 북측 가족의 체제선전과 지도자 찬양·충성 발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남측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더해 주었다.

□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성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당국차원의 공식 교류가 본격화됨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왔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이산가족 교류·상봉 인원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되었다. 지난 7년 동안 남과 북은 14차례의 대면상봉사업,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사업, 1차례의 서신교환사업, 그리고 5차례의 화상상봉사업을 하였다. 14차례의 대면상봉사업을 통해 14,471명의 가족·친척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5차례의 화상상봉사업을 통해서도 2,732명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또한 총 39,217명¹⁾의 생사·주소가 확인되었으며, 2001년 3월 서신교환 시범사업에서는 남북 각 300명씩 총 600건의 서신을 교환하였다. 둘째, 횡수를 더해 가면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상봉을 기함으로써 가족 상봉의 의의를 한층 더 높였다. 이를 테면 가족상봉의 횡수 증대 및 비공개 개별상봉, 삼일포 참관 상봉, 고령자와 건강이상자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동행 등을 통해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가족상봉의 의의를 더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와 함께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령의 이산가족과 몸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셋째, 남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에 있어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수적으로는 미흡하지만 전후 남북자·국군포로의 가족상봉이 성사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시·전후 남북자 및 국군포로문제를 당국간에 본격적으로 의제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금강산 면회소 건설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1) 제5차 화상상봉을 통한 생사확인자 수는 포함되지 않음.

□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정치적 영향

이산가족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인권 및 인륜의 문제이자 인도주의적 사안이다. 따라서 남북 당국은 정치·이념 및 제도를 뛰어 넘어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전제나 단서가 따르는 안 되며 정치·군사적 상황변수에 의한 제약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이산가족 당사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인권 침해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이념 및 군사적 대립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교류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제약을 당하고 있다. 실례로 제4차 이산가족 상봉(2001.10.16~18)을 나흘 앞두고 북한은 남측의 '비상경계조치'를 문제 삼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유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 대해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 및 금강산 면회소 건설 공사 전면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인도주의 사안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대응한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장에서 돌출하는 일부 북측 가족의 체제선전과 지도자 찬양·충성 발언, 제5차 화상상봉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우리측의 특정정당을 겨냥한 대선 관련 발언 등도 인도주의 사안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단면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간 물리적 장벽이 해체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체제,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리적 장벽의 해체와 함께 남북한간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야만 가능해진다. 남북한간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도주의 사안, 특히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이산가족 당사자의 인권 구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치·이념 및 제도를 뛰어 넘은 인도주의 구현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주요 징표이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 및 인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필수 과정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 사안이다. 또한 남북이산가족문제는 남북한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일의 선결과제이므로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산가족문제 관련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문제해결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고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산1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과 한을 공감할 수 없는 후세대들에게는 이산가족 상봉·교류가 절박한 문제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남북이산가족문제의 본질 및 중요성이 희석될 수도 있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고령 이산가족의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가 더할수록 고령 이산1세대의 사망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다.